

‘언론아닌 언론’ 강력한 책임 추궁을

大韓言論人會 ‘4·11 총선과 사이버 언론’ 긴급 대토론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흑색선전을 하는 사이버 언론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응책으로는 주류 언론의 진실점검팀 구성과 사실보도 강화, 흑색선전과 사이버 언론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묻기, 신속한 재판, 국민의 각성 등이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3월19일 서울중구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11총선과 사이버 언론’ 주제의 긴급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이비 언론의 허위과장 보도가 심각한 실정이라서 공정보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그 실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 자리를 후원해 준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심재철 고려대교수가 ‘저널리즘에서 본 사이버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이재교 변호사가 ‘사이비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를 했다.

이들은 “강한 이념·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신문·방송·인터넷매체가 모두 사이버 언론”이라고 규정했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이버 언론은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폐해가 돈이나 뜯어내는 단순한 사이버 언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흑색선전으로 선거의 당락이 갈라진 후 진실이 밝혀진들 소용이 없고, 흑색선전을 한 자들이 처벌된들 왜곡된 선거결과가 바로 잡히지도 않는다는데 있다”며 흑색



열기로 가득찬 대한언론인회 긴급 대토론회장. (원내는 인사말 하는 홍원기 회장)



선전과 사이버 언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이버언론의 행태로 ‘나꼼수’의 나경원 후보 1억원 피부와 폭로 사건, 정봉주의 BBK흑색선전, 2002년 대선에서의 김대업 병풍사건 등이 거론됐다.

사이비 언론 대응책으로 주류 언론의 시사비비를 가리는 사실보도와 설명력 높은 논평이 중요하다고 제시됐다. 이를 위해 메이저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진실점검팀을 운영해야 하며 흑색선전에 대해 엄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지연된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이 있듯, 신속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흑색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사이버언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묻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흑색선전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토론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조작된 허위사실로 흑세무민하는 언론도 아닌 언론의 사이버 언론 행태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흑색선전을 한 사이버언론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궁극적으로 사이버 언론을 가려내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깨어있는 이성만이 답이란 결론이다. [K]

이념편향성 강한 SNS등 규제 강화 신속한 재판으로 발 못붙이게 해야

大韓言論人會 긴급 대토론 개요

주제: 4·11총선과 사이버 언론

제1주제

사이비 언론보도의 문제점

발표 : 심재철 고려대미디어학부장
겸 언론정보대학원장

토론 : 이정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희조 세종대 석좌교수

제2주제

사이비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 :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토론 :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사회 :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일시 : 2012년 3월19일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정리 :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세종대 석좌교수)

2·3·4면에 주제발표·토론내용

주류언론 ‘진실 점검팀’ 운영할 필요

大韓言論人會 ‘4·11 총선과 사이버 언론’ 긴급 대토론회

제1주제 :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 발표요지

심재철(고려대 교수)



언론을 통해 보도돼야 하며 후보자간에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선거기간 얼마나 새롭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며, 갈등적인 사회이슈가 폭넓게 논의되느냐가 생동감 넘치는 민주정치의 관건이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의견이 선거를 통해 수렴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적 선택에 승복하는 가운데 사회갈등이 해결되며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게 된다.

사실 확인 없는 ‘쥐잡기 보도’ 차단 선거 막판의 흑색 선전 등 사라져야

리에 움직이기에 사주한 후보나 몸통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설사 쥐잡기 활동이 발각되더라도 코드에 의해서 특정 후보의 비윤리성을 드러낼 때에는 이익을 본 경쟁후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쥐잡기 활동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조작이나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음모도 포함된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업 사건도 일종의 쥐잡기 활동으로 간

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선거캠페인 전략과 쥐잡기 활동의 전모가 국내외에서 선거기간 중에 시기적절하게 밝혀진 사례는 없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1992년 선거에서는 진실점검팀(Truth Squad)을 가동한다. 공화당 선거책임자는 진실점검팀의 시기적절한 대응 때문에 “클린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캠페인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실점검팀이란 기자들의 5분 대기조와 비슷하다. 선거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특정후보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부정적 정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따라서 부정적 캠페인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드러나 부정적 캠페인을 한 후보 측에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영방송사 KBS는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진실점검팀을 꾸미려는 사전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파업으로 인력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다 큰 진실(the larger truth)’ 공방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이슈가

면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여당 후보와 비교해 단 한번도 야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보도를 한 적이 없다. 비슷하게 한국신문을 대표하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도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에 대해 호의적 선거보도를 해 주지 않았다. 평소에는 신문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강조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특정후보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까지 보였다. 예외적으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MBC와는 달리 KBS가 야당 후보에게 불리했던 BBK 이슈를 선거 막바지에 크게 다루지 않았다.

언론에서 진실의 반대말은 허위가 아니라 ‘또다른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 매체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슈를 찾아내 ‘주관적 진실’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보도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나꼼수라는 팟캐스트는 밝혀지지 않은 작은 진실을 무시한다. 나아가 사실(fact)을 넘어서는 상상의 나라를 퍼며 ‘보다 큰 진실’을 추구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어디서부터가 객관적인 진실보도이며 어디서부터가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내는지 그 경계를 알 수 없다. 여기서 배설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리듬을 타듯이 욕설을 해댄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신문만평과 같은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 ‘보다 큰 진실’을 추구하는 이러한 진행에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웃자고 한 이야기에 칼을 들이대고 덤비는 형상’이 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공식적 선거캠페인 기간이 너무 짧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이며 대통령선거는 23일간이다. 언론 보도에서 선거 막바지 부정적 캠페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같이 짧은 기간에 진실점검이란 어불성설이다. 여기에 선거공영제와 미디어선거를 실시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선거보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미디어 언론보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류 언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실보도와 설명력 높은 논평이 중요하다. 나아가 그래도 형편이 나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진실점검팀을 운영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언론의 자유는 온라인 혹은 오프 라인을 막론하고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4]

사이비 언론이란 겉과 속이 다르며 사회 통념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언론을 뜻한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과연 사이비 언론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객관주의적 보도원칙을 벗어나 대다수 독자나 시청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보도를 사이비 언론보도라고 정의했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이나 선동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중계 보도한다면 사이비 언론 보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기자가 보수든 진보든 특정한 이념이나 편향성을 좇아 사실을 왜곡하며 겉과 속이 다른 선거보도를 한다면 사이비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언론보도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이지도 못했으며, 객관적일 수도 없었고, 객관적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객관성을 부인하는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다. 그럼에도 매스컴은 올드 미디어 이진 뉴미디어이진 언론보도를 통해 선거환경을 감시해야 하며, 후보자와 피후보자 사이의 소통과 정보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결과와 함에 따라 이루어진 아름다운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보도의 객관성이란 무엇일까.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정확성이다. 그래서 저널리즘 교육에선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하게 보도하라고 주문한다. 나아가 독자나 시청자가 선거보도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선거자금을 동원했는지에 대한 심층보도가 적다.

지금까지 선거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정적 프레임의 캠페인 전략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언론에 의해 후보자의 비윤리성이 부각될 때,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를 위해 투표하러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비위사실을 밝히려는 쥐잡기(ratfucking) 활동팀이 구성된다. 이들은 대체로 음지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한다. 비밀



본회 산악회 2012 무사산행기원 시산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북한산 삼지봉자락에서 30여명의 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의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2012년도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사진).

봄비가 간간이 내리는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구름정원길을 산행한 후 이상호 부회장의 집전으로 1, 2부로 나누어 거행된 이날 시산제는 정운종 산악회 회

3면으로 이어집니다.

허위사실 유포 꼭 ‘징역형’ 선고토록

大韓言論人會 ‘4·11 총선과 사이버 언론’ 긴급 대토론회

사이비언론의 정의

총선과 대선이 다가온다. 1997년의 15대 대선과 2002년의 16대 대선에서 흑색선전이 맹위를 떨쳤고, 특히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후보에 대한 김대업의 병풍조작 흑색선전이 당락을 갈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흑색선전은 여전했다.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은 공정정보·중립이라는 말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대선에서 이들 언론은 어느 한편에서 거의 선거캠프의 나팔수노릇을 한다.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하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흑색선전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군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들 SNS를 통하여 널리 퍼지고 이어 사이버 언론들이 ‘심층보도’를 통하여 신뢰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사이비언론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도의 근거로 삼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사이비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파나르면서 흑색선전은 점점 근거 있는 진실의 형태를 취한다. 이른바 언론과 SNS의 ‘되먹임구조’다(아주대 홍성기 교수의 표현). 지난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에도 흑색선전이 있었지만 SNS와 사이비언론이 합작을 하여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과거 선거와 다른 양상이다. 이제 SNS를 통해 언필침 빛의 속도로 확산되어 흑색선전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흑색선전으로 선거의 당락이 갈라진 후 진실이 밝혀진들 소용이 없고, 흑색선전을 한 자들이 처벌된들 왜곡된 선거결과가 바로잡히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이 사이비언론일까? 우리사회에서 공갈을 일삼는 사이비신문만 사이비언론일까? 나는 강한 이념·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신문·방송·인터넷매체가 모두 사이비언론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사실과 주장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내용인지 여부만 구별하는데, 이런 매체가 언론일 수는 없으니 사이비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갈을 일삼는 사이비언론의 폐해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지만 진영논리에 빠진 사이비언론은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폐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후자의 사이비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하고자 한다.

제2주제 : ‘사이비 언론 법적대응’ 발표요지

요즘 뜨고 있는 ‘나꼼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트는 어떨까? 이는 겉모습이 언론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하는 짓도 언론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팟캐스트(podcast)란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서 미디어 파일에 RSS주소를 적용하여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팟캐스트는 개인이 서버를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이를 개인들이 구독하는 내용과

이재교(변호사)



의 지지율이 급감하였다. 문제는 주진우 기자가 주장한 내용 중 핵심에 속하는 ‘1억원 피부과’는 허위사실이라는 데에 있다. 〈정봉주의 BBK흑색선전〉

정봉주가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정봉주는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대책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다.

재판 지연되면 처벌효과 떨어져 진실 밝혀도 선거결과 못뒤집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진다.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 팟캐스트는 라디오가 아니고 따라서 방송도 언론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이비언론이라고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팟캐스트의 기능은 분명 언론이다. 팟캐스트 역시 넓은 의미의 방송으로 보고, 그 자세가 언론 본연의 길에서 크게 벗어날 때에는 사이비언론의 범주에 넣어 법적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

사이비 언론의 행태

〈‘나꼼수’의 나경원 후보 1억원 피부과 폭로 사건〉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며칠 앞둔 10월 20일 ‘나꼼수’에 출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피부과 좋은 것은 강남에 있는 회비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을 다녔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반면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는 나 후보와는 대조적으로 16만원짜리 10년전 재킷을 입고 8만원짜리 안경을 쓰고 다닌다”고 비교했다. 이 내용은 수많은 언론과 인터넷 매체가 이를 인용보도했다. 박원순 후보측과 야권은 나 후보를 ‘신종 귀족후보’라고 낙인 찍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 폭로로 인하여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그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상대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정봉주는 1,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봉주 지지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박근혜도 BBK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했는데 왜 정봉주만 구속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혹제기와 흑색선전을 구별하지 못한 주장이다. 선거에서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구별되는데, 전자는 죄가 되지 않지만 후자는 흑색선전으로 범죄가 된다.

법적 대응책

선거에서 흑색선전은 진영논리에 매몰된 사이비언론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사람보다도 이를 열정적으로 보도한 사이비언론의 폐해가 훨씬 크다. 흑색선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이비언론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흑색선전에 대하여 엄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른바 ‘나경원선거법’이 이 취지에 부합한다. 새누리당 정국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흑색선전이나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정봉주법’이다. 정봉주법의 압권은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부칙이다. 결국 정봉주법을 소급시켜 정봉주를 즉시 석방시키겠다는 것이니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법을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운용하겠다는 태도에 그저 아연할 뿐이다.

둘째, 신속한 재판이다. “지연된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아무리 흑색선전을 한 자를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데 정봉주의 흑색선전에 대하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대법원이 36개월이나 끌다가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3년간 재판을 끄는 동안 정봉주 전의원은 ‘나꼼수’에 출연하여 상당수의 지지자를 확보했고, 이들이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맹비난하면서 정봉주의원에 대한 판결과 형집행(수감)을 정치문제로 삼았으니 대법원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이다.

셋째, 흑색선전을 여과없이 전달하는 사이비언론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의 병풍사건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04년 1월 김대업은 1억원, 오마이뉴스 발행인 오연호와 편집장·기자들은 3000만원씩, 일요시사의 발행인 이용범과 기자들은 2,0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적다. 대선과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이나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하여 수십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이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채 흑색선전에 앞장설 경우에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만이 사이비언론의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길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흑색선전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흑색선전을 한 사람, 정파, 언론매체에 대하여 매섭게 책임을 묻는다면 흑색선전에 선뜻 나설 정치인도 정치협잡꾼도, 사이비언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장의 인사말과 윤익한 고문의 격려사, 강진형 부회장의 자연보호현장낭독, 산행보고 등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이어 2부 제례 순서로 들어가 제주인 정운중 회장의 강신례를 시작으로 참

신례 초헌례, 안평선 자문위원의 독축과 안종우 명예회장의 아헌례, 나용경 총무의 종헌례 그리고 연장자 순 헌장을 끝으로 시산제를 모두 마쳤다.

시산제 후 연신내에서 있는 오찬자리에는 흥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다수 참석해 산악회 활동을 격려했다.

이어 그동안 산악회 집행부를 맡으면서 노고가 많았던 조창화 고문(분회 명예회장)과 안종우 명예회장(분회 자문위원) 최귀조 감사(분회 이사)에게 공로장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참석 회우들에게는 기념 타월을 선물했다.

이날 찬조를 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

다. [주] (가나다순)

강남기 강진형 권영국 김성모 김세경 김영호 김의수 김재영 나용경 신광식 안종우 안평선 우제근 윤익한 이상호 이우진 이정세 이태영 이학성 임현태 장 옥 정운중 조성환 지용우 최귀조 최상목 한기호 흥원기 황귀근 무명인

흑색선전 행태 철저한 감시-견제를

大韓言論人會 ‘4·11 총선과 사이버 언론’ 긴급 대토론회

이정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요즘 언론들은 각종 뉴 미디어의 출현으로 어떻게 보면 풍부한 정보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올드 미디어인 신문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매체와 팟 캐스트라는 장르의 방송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가 하면 SNS에서 구별 없이 각 보도들을 다시 리트윗하거나 개인이 아는 정보를 올려 퍼뜨린다. 스마트 시대에 이런 정보들은 아주 빠르게 순환되고 있다. 이들 매체 중에는 오보, 몰아가기, 과장보도, 감정적 보도표현에 선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이 언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언론의 범주조차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연예, 오락, 소설, 예술과 다른 점은 사실확인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요즘 언론에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범주가 모호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진실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을 대중들이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언론자체가 자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중들은 진실보도에 상관 없이 재미를 유발하는 쪽에 쏠리게 되어 있고 사실확인 이전에 급속히 정보가 퍼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자유라는 점에서 언론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매체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 써대는 신생매체들이 난립하고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에 대한 공격으로 위상을 알리려는 시도도 하고 오보일지라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보도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명예훼손 고발도 빈번해 지는 현상은 저널리즘 원칙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꼼수’의 기획취지나 김어준의 걸어온 길을 볼 때, 이들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이 운영하는 미디어 공공성 포럼과 언론노조에서는 이들에게 민주언론상 등을 수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조차 모두 정치세력의 어용으로 전락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나꼼수의 성과라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의 1억원대 피부마사지 업소 출입 등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의 기류는 오히려 허위사실로 처벌받으면 더 큰 충성도를 인정받는다. 심지어 나꼼수의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아마도 나꼼수는 이번 총선과 대선을 거쳐 허위사실 혹은 확대과장된 팩트로, 특정 정치세력의 기관지로 맹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이 대통령으로 지원하는 문재인 후보의 맞상대인 새누리당의 손수

주제별 및 종합토론 요지



문명호 사회자



변희재 토론자



이정옥 토론자



최희조 토론자



홍정기 토론자



전희경 토론자

‘아니면 말고’식 보도 끝까지 추궁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조 후보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나경원 의원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팟 캐스트는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 콘텐츠에 불과해 기존의 민형사 소송 외에는 별달리 언론의 윤리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해 총선과 대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

최희조 세종대 석좌교수

‘나꼼수’ 같은 게 대표적인 사이버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행세하면서 거짓말로 흑세무민하고 있는 게 사이버 언론의 전형이다.

사이비들은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탄압이라며 저항한다. 허위사실을 만들어 진실인양 퍼뜨려놓고는 이를 문제 삼으려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역공을 편다. 언론도 아닌 사이버 언론에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심각한 사실은 흑세무민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뒤에 거짓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같은 SNS시대에 온갖 거짓과 사술로 이 사회나 나라 전체를 통째로 들어먹으려 하고 있다. 언론인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언론 흉내

를 내고 있는 게 문제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있어서 정확성과 공정성, 객관성, 이 세 가지를 생명으로 한다는 사실은 언론인에게 기본 상식이다.

사이비 언론은 이 세 가지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이비는 스트레이트와 에디토리얼을 뒤섞어 거짓이거나 어떤 의도로 조작된 내용을 갖고 제멋대로 나발을 분다.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이비들이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고 오는 연말 대선과정에서도 사이비 언론은 SNS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 선동으로 흑세무민하게 분명하다. 인터넷 상의 사이비 언론이 가장 큰 문제다. 제도언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다. 제도언론이 보다 더 철저히 진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이비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허위’의 개념에 대한 사법판단 또한 시류에 영합하는 일부 조류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와 교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약’의 개념에 대한 사법적 확신이 미흡한 것도 무책임한 허위선전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SNS 공간을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하게 하고 그 첫 선거 시험무대가 4·11 총선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나꼼수의 경우 팩트를 연결한다는 허울 아래 비약, 희화화를 대중 호소력썸으로 왜곡해 진실을 호도하고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강권’ 해음으로써 그 폐해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다. 일컬어 정보주법안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법치를 희화화해 온 일면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해외를 향해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폐단까지 연출되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 선거사범 감시 강화와 관련해서도 3월9일 이래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시켜왔지만 현행 선거법의 한계 때문에 사이버 선거사범의 양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검·경이 새 판례를 구한다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요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등)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개정 불가피론이 지적되는 현실이다. 법이 기계적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정론언론의 당연한 기능과 역할은 제약되고 사이비 언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입법론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검찰수사의 음모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해 여론 일부를 왜곡해온 실정이다. 기소법정주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위기 ‘국민계엄’ 선포해야 한다

정치공위 시대에 맞는 선거의 황금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정치활황기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정치부재의 혼돈에 빠져 어둡기만 하다.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걱정이 앞선다.

정치가는 국가운명의 키를 잡은 조타수다. 그러나 선장이 어떤 항로를 따라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 선객인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가불안의 진원(震源)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첫째, 그들은 국권을 추구하면서도 국가경영(國家經營)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일반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지도자들까지도 국가목표가 무엇이고, 국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전혀 구상이 없다. 표를 의식해 많은 구호들을 내놓지만, 모두 실현성이 없고 국가에 해로운 일 뿐이다.

둘째, 국적불명(國籍不明)의 정신상태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다.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 하고, 천안함 격침자는 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공천에서 민의를 조작하고, 범법자를 의원후보로 공천했다. 그들이 과연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과 곁을 같이할 운명공동체인가.

셋째, 국가이익(國家利益)을 해치고 있다. 자기 당선만을 위해 전체국익을 무시하고 관할지역 이익에만 몰두한다. 게다가 국가에 해롭고 적대세력에 유리한 것을 골라 실행키 위해 행동한다.

넷째, 민주원칙(民主原則)을 유린하고 있다. 자유토론을 거쳐 다수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다. 그러나 한국의회에서는 반대안이 나오면 토론과 표결을 거부하고, 주먹과 멧살, 망치와 최루탄이 난무한다.

정치인들의 이런 의식실종·철학부재가 정치공위(政治空位) 국가위기(國家危機)를 가져왔다.

정당은 있으나 정당정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國民主權)의 대원칙 위에, 정당중심의 ‘의회정치’, 독재견제를 위한 ‘권력분립’, 법률과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구종서

- 본회 논설위원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문명사 연구소 대표

올해선거 준엄한 主權행사 정치인 응징할 절호의 기회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지만, 그들이 정치인을 믿지 않고 있다. 국법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신뢰를 잃었다.

민주정치의 중심은 의회다. 의회는 양당제든 다당제든 정당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민주정치는 곧 정당정치(政黨政治)다. 정당이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야 민주국가다. 그러나 지금 한국엔 믿을만한 정당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의 연합공천에서 정당이 졌다. 패배한 민주당의 지도자와 낙선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런 무소속이 선거에

선 여당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었던 무소속의 개인이 양대 조직정당을 잇달아 격파한 것은 바로 한 국정당정치의 조종(弔鐘)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집단을 끌어들이며 정당을 확편, 그들의 자랑인 전통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었

인 주권행사가 바로 선거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교체하는 올해는 국민이 하늘의 위엄으로 국가대권을 행사할 절호의 기회다. 문란해진 국가기강을 국민이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위기를 구할 수 없다. 국가위기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 두 차례 선거는 국민이 나서서 방황하는 국혼(國魂)을 바로 세우는 구국의 기회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해답은 위기를 가져온 원인 속에 있다.

첫째, 애국적인 국가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의지력 강한 후보를 뽑자. 세금으로 부담할 것인데도 선심을 쓰는 듯 공짜를 가장하는 사이버 정객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신이 분명하고 국적의식이 철저한 후보를 뽑자. 국가정체성을 무시하고 적대세력을 돕는 반국가 인물을 냉엄하게 척결해야 한다.

셋째, 개인욕심과 지역이익에 얽매인 정상배를 축출하고, 국가이익과 전체국민 미래후손의 공익에 충실한 인물을 뽑자. 극렬파가 자기네 소수의견을 국민전체 의사로 둔갑하는 철면피를 벗겨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후보를 찍자. 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국법을 어긴 자, 국민에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하고는 속임수로 득표하여 공천된 자와 공천한 자를 과감히 응징해야 한다.

단호 준엄한 국민투표는 곧 국가주권의 계엄선포(戒嚴宣布)다. 정치인이 각성하여 정당이 바로 서고 올바른 의회가 이뤄질 때, 우리 한국은 의리와 명분과 인정이 넘치고, 국가정기(國家精氣)가 강건한 선진대국이 될 수 있다. [국문]

4면에서 이어집니다.

의의 대안으로서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검찰의 기소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방송과업, 언론사인지 특정 정파의 운동단체인지 모를 지경의 신문, 인터넷,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까지 대중들은 언론의 홍수, 기사의 홍수, 논평의 홍수 속에 있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뛰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매체들을 모두 사이버 언론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시민권력의 정치세력화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시민의 적극적 참여 증대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 혹은 견해들이 마치 시민의견의 전체인양 전면에 떠 오를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특히 SNS는 이런 경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무장된 시민의식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 사이버 언론을 가려내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도, 그 스스로가 사이버 언론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유권자의 깨어있는 이성만이 답이다. [국문]

生活斷想

마음속에 피는 꽃

봄은 꽃과 함께 온다. 동백, 산수유 꽃망울이 부풀어 오면 겨우내 세차게 불던 바람소리도 잦아든다. 꽃이 피어 날까 시샘한다는 ‘꽃샘 추위’가 몇차례 용틀임을 해 보지만 이내 사그라져 북녘으로 사라져 간다. 봄 꽃은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 내고 돌아 나는 생명이며 인고의 힘이다. ‘대지는 꽃이 있어 살고 꽃이 있어 웃는다’는 시구가 떠 오른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이겨내고 피는 가을 국화꽃을 보며 시인 서정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은 후 지는 생태의 원리와 같은게 아닐까. 세상 살아가는 인간사



윤기병

- 본회 부회장
- 전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 전 LA한국문화원장
- 전 정부1차관

도 자연의 순리, 꽃이 피고 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IT산업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지만 결국은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연은 과학문명의 원천인 ‘무한한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 한 우주인의 말이 기억난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자연의 영혼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보고 왔다.” 과학자가 보고 느낀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의 말이다. 자연과 인간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꽃을 피우는 자연과 그 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인간은 자연의 영혼이란 한 뿔줄에서 태어난 게 아닐까.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태고부터 내려온 섭리인 것 같다.

사람이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 속에 빠질수록 자연의 영혼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더 느낀다는 말이 있다. 15세기 인도의 영적 시인 카비르의 시구가 떠오른다. “한송이 꽃이 피어날 때, 마음 속에 수천 개의 꽃들이 함께 피어 난다.” [국문]

방송 파업은 좌파집권 위한 정치극

MBC, KBS, YTN 등 주요방송사 노조는 연대파업을 벌이며 한결같이 “현직 사장 물러나라”고 외친다.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사장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사장 퇴진이다. 정권의 입김이 방송에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주의 굿판이 돼버린 파업.

방송연대파업의 중심에는 MBC노조가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공정방송을 해치고 있다며 지난 1월30일부터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전투구를 넘어 악마들의 사투를 보는 것 같다. 노조는 김 사장을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마구 쓴 흔적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측은 불법 파업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MBC 사측은 박성호 기자회견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 했다. 이에 보도국 기자 166명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노측은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사측은 ‘나꼼수’ 처럼 의혹과 소문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공정방송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한다. MBC 노사의 추잡한 싸움은 3월 20일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성은 물론, 도덕도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재철이란 자가 청와대 낙하산을 타고 또다시 MBC에 내려앉은 이후 20여 년 전 군사정권 말기와 비슷한, 아니 더 지독한 악취를 내뿜으며 공영방송 MBC를 썩어 몽그러뜨리고 있다.〉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멸이다.

이 성명서를 읽으며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지낸 최도영씨가 쓴 장편소설 ‘붉은 수선화’가 떠올랐다. KMG란 거대 방송사가 소설의 무대이다. 권력과 밀착한 사장의 파렴치와 탈

선 그리고 교활하고 막강한 노조의 전횡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쉽게 최도영씨가 봉직했고 지켜봤던 MBC에서의 일과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최도영씨도 작가 후기에서 ‘그러나 한 가지 꼭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소설을 비록 작가의 상상력의 소산이라 하더라도 글

방송시평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협의로 고발하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비아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연대파업은 정치행위

앞서 인용한 MBC노조의 성명에서 “김재철이란 자가 청와대 낙하산을 타고…”라는 구절과 “MB정권의 사주를 받아 마구잡이로…”란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조의 김 사장 배척 원인

를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언론독재정권일 자격이 없는 것이다. 혹여 모르겠다. 이도 저도 제대로 못한 ‘물박 정권’이라거나 뇌물이 많이 오간 ‘돈 정권’이라거나 야당 눈치만 보다 정치 제대로 못한 ‘눈치 정권’이라는 등의 별칭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아니다. ‘대통령의 추락’이라는 대학교수의 신문 칼럼이 나올 지경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에서는 방송3사 파업이 정부의 언론 탄압 결과라며 칭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성전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파업이 야당의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가.

KBS 제2노조의 홈페이지에서 지난 달 16일 저녁 여의도 공원에서 있었던 ‘방송3사 사장 동반퇴임 축하쇼’라는 공연 녹화물을 봤다. 참여하고 참관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방송3사 파업이 바로 좌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 파업임이 분명했다.

방송사 노조들은 공정방송이란 가림막을 치우고 솔직하게 정치에 나서라고 권하고 싶다. 그게 국민을 우롱하지 않는 일이다. 젊음의 양심에 떳떳한 일이기도 하다.

파업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노사관계에서 볼 때 방송사 사장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다. 그럼 방송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란 주인을 농락하며 저들은 엉뚱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엄히 벌 받아야 한다. 노조측은 물론이고 그를 막지 못한 사측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원은 물론이고 사측 관계자에게도 무조건 쌍벌제를 도입해서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 [4]

사장 人事를 언론 독재로 몰아가 노조와 함께 경영진도 문책 마땅

을 쓰는 작가의 상상력은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쓰고 있다. 소설 중에는 편법으로 거액을 빼돌리는 사장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고 북한을 방문해서는 김정일의 배려로 기쁨조 미녀와 쾌락의 밤을 보낸다는 내용도 있다. 노조 집행부가 사장을 납치해서 약점을 들어 협박하고 거액을 뺏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간 시중에서는 MBC는 주인 없는 방송사이며 노조가 주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같은 소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일도 있었으니 이번 ‘붉은 수선화’도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이 MBC의 명예를 분명히 실추한 것은 사실인 만큼 사측이나 노측이 최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의 첫 번째가 정권과의 연계성이다.

KBS 김인규 사장의 경우도 같다. 그가 MB의 언론특보였다는 사실이 수십 년 간 방송기자로 헌신한 관록을 뒤엎어 버린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외친다. 이견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MB정권을 가리켜 언론 독재이며 이들 사장을 언론독재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한다. 나는 김재철이나 김인규가 방송사 사장으로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데는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독재 정권하에서 어떻게 그 정권의 퇴진을 목표로 하는 ‘나꼼수’ 같은 막말 인터넷 방송이 활개 칠 수 있으며 공영방송 노조가 연대해서 파업을 자행하고 합쳐서 축제 쇼

광개토왕서거 1600주년

고구려 북방 경계선 밝혀야

한국사의 강역을 가장 크게 넓혔던 광개토왕(374~412) 서거 16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한국고대사학회, 국립박물관 주최로 열려 중국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을 장악했던 고구려사를 재조명했다. 동북아재단도 광개토왕 시대를 반증자료로 고구려사를 중국사 일부로 왜곡한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학술회의를 검토중이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 학자 30여명이 참석한 제25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는 1천 8백여자 광개토왕 비문중 신묘년기사와 일부 결자(缺字)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독하여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 윤곽은 밝혔으나 광개토왕의 요동 반도와 내몽고 정벌 지역과 정북지역 복속(服屬) 문제는 정확히 구명하지 못했다. 1600여년전 광개토왕의 전투가 20세기 한국 중국 일본 삼국 학계의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재일고고학자 이진희 교수(明治大)가

1972년 ‘광개토왕릉비의 연구’(吉川弘文館)에 “4세기 후반 야마토(大和) 정권이 한반도에 출병하여 2세기 동안 한반도 남단을 지배했다는 일본학계의 임나일본부설의 근거 자료로 활용됐던 광개토왕비 탁본과 해석은 변조 왜곡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일본학계의 4~5세기 한일고대관계사 재검토”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진희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일본(武田行男) 중국(王健群) 한국(김종무) 학계에서 반론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40년지나 임나일본부설의 허구는 일본 학계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필자가 1972년 11월 이진희 교수의 ‘광개토왕릉비의 연구’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며 한일고대관계사 재조명을 제기했을 때 동양사학자 김종무씨와 국사학자 이병도교수가 조선일보에 이진희 교수의 주장을 비판한 기고문이 발표되고 홍이섭 교수와 언론인 천관우씨가 “이진희씨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 있다”고 반박한 것이 국내학계 반응의 전부로 40년 전 한국고대사학계의 광개토왕 연구는 빈약했었다.

그러나 40년이 흘러 이진희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광개토왕 연구에 뛰어들 건국후 2~3세대 고대사학자들이

참여한 2012년 국제학술대회의 질과 양 모두 발전해 한국고대사학의 성장을 과시했다. 천관우 노태돈 김태식 노중국 서영대 이도학 이형구 김현구 이기동 서영수 정두희 서영대 여호규 공석구 임교환 교수와 미래문제연구원 고구려연구회의 종합적 연구로 주목할 저술과 논문도 많이 나왔다. 2012년 광개토왕은 TV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로 학문적 연구가 천착(穿鑿)되어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으나 일본 중국 학계의 기존 프레임을 벗어 나지 못해 연구가 정돈(停頓)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바이칼호 유역에서 목축을 했던 유목민이 몽골을 지나 광개토왕시대 압록강변에 정착하기까지를 고구려 신화 등에 투영된 역사적 사실과 고고학발굴 등을 토대로한 광개토왕의 새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野여론조사 조작 ‘죄질인식’에 격차

4·11총선은 12·18 대선의 전초전. 2015년 말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앞두고 급변할 안보환경을 다룰 국회의원을 뽑는 중차대한 총선이다. 그러나 ‘눈높이’, ‘감동’이라는 감성 마케팅은 그런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로 미화된 ‘퍼주기’와 ‘부자증세’가 주요 화두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한미FTA의 어이없는 공격이 안보불감증의 증거란 느낌이다. 10·26 보선의 민심에 놀란 여야는 정치쇄신을 약속했다. 모바일 경선, 여론조사 단일화, 지역구의원 하위 25% 컷오프 등의 방식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대신할 수 없었다. 지지도를 무시한 계파 공천에 분노한 탈당, 경선과정의 여론조작 등 곳곳에서 파열이 생겼다.

새누리 우파 이념 투철한 인사 배제

한겨레신문은 5일 사설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우리는 도덕성 공천’이라는 자랑도 했다. 하지만 18대의 친박 학살이 19대에선 친이 학살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소리도 높다”고 썼고 민주당에겐 “완전 국민경선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86, 특정 대학 인맥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새누리의 친박 득세, 민주의 ‘노이사(친노, 이대, 486)’ 현상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천의 현역 탈락은 41%. 非朴계 탈락률은 친박계의 2배였다. 특기할 것은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인사들의 배제였다. 수도분할 반대 김무성, 전교조가 세비를 압류한 조전혁, 무상급식에 맞선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보수의 입’ 전여옥, 신지호를 쳐냈다. 진보당이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을 비례4번에 공천한 것과는 영 판 판인 ‘파이팅정신’ 결핍이다. 한미 FTA에 반대표를 던진 황영철은 대변인에, 재공천까지 됐다.

새누리는 호남 30곳 중 13곳을 무공천했다. 동아일보는 23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을 인용, “신청자가 있어도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쓰면서 “친이계가 일부 포함된 호남 신청자를 공천하면 총선 후 당협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12일 “‘대선용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대목이다. 친박계 입장에선 총선에서 의석을 다소 잃더라도 대통령 경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당협위원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기관 인사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현역 37%를 몰갈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한겨레 野圈연대 가치에 큰 비중 동아 조선 문화는 2중жат대 비판

이한 민주당은 이념과 정체성을 잣대로 문재인, 이해찬 등 쾰친노세력 86명을 약진시켰다. 74곳 야권 단일화는 민주당 59, 진보당 14, 진보신당 1곳이 승리했지만 곳곳서 ‘여론조사 조작’ 시비로 중대변수가 돌출됐다. 이는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 측이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때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데서 촉발됐다. 신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일제히 사설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죄질’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21일 가장 먼저 사설을 쓴 동아일보는 “부정선거에 준하는 여론조사 조작이다. 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이 사안을 어물쩍 넘긴다면 야권 단일화 경선 전체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민주당 후보들이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치적 기사화생을 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조그만 이익보다는 야권연대라는 대의를 충실히 따르는 일이다. 야권이 힘을 합쳐 현 정권의 실

정을 심판해주길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여론조작을 사소한 것의 침소봉대로, 공정한 경선의 승리를 ‘조그만 이익’으로 비하하고, 야권연대만 높은 가치로 평가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당대표직과 후보직 사되는 물론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게 옳다. 옛 한나라당은 2008년 당대표 경선 당시 300만원 돈 봉투를 돌렸다는 내부 폭로 이후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으로 간판까지 바꾸었다. 통합진보당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통합진보당의 두 얼굴’, 이중жат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입만 열면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투표의 의미와 근거를 무효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별게 아니라고 한다. 이 나라 권력이 넘어갈 경우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손으로 자신의 무죄를 선고하는 망망이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부정선거’로 맹공격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나 진보당은 진보세력의 명운과 야권연대의 승패와 맞물린 결정적 고비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사설에서 촉구했다.

진보당 교섭단체화 충격 분석해야

진보당은 전국 30곳에 야권 단일후보화에 성공, 비례의석을 합치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달성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진보당 핵심세력과 총선을 선두에서 지휘할 이 대표는 자신들이 보기에 ‘죄질이 미약한’ 여론조사

개입 시비에 밀리기 싫은 것이다. 한국일보는 20일 ‘통합진보 원내교섭단체 가능할까’란 기사에서 “재계는 진쪽 긴장하고 있다. 재벌 해체를 전면에 내건 진보당이 국회의 실질적인 한 축이 된다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대기업 측의 말을 보도했다. 신문들은 이정희, 강기갑 등이 일으킨 18대 국회의 격진에서 극좌파 교섭단체화가 몰고 올 정치·경제적 충격파를 심도 있게 보도해야한다.

신문들은 야권 공조의 정체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5일 공천탈락 후 정계를 은퇴한 경제통 강봉균 의원의 말을 인용,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노선을 무조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념 지향적으로 가면 선택을 망설이는 중도층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13일 “민주당은 반미종북 성향의 정당과 손잡으면서 보수 및 중도 유권자들의 불안을 달래려고 ‘좌우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인상이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라며 한 대표의 정체성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박세일 교수가 창당한 ‘국민생각’에 대해 “기성정당을 욕하면서도 기성정당 동지로 찾아드는 것이 현실정치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삭줍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극한대립을 불식하려면 캐스팅 보트가 될 전국 정당이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스펙트럼을 볼 때 극좌의 존재는 그에 균형을 맞출 극우를 요구한다.

신문들은 주요 정당의 입후보자만 대충 소개하고 개표도 당선자와 차점자만 쓰는 비민주적인 보도를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자랑한 모바일경선은 당내 예비후보측 피의자의 자살 사태를 불렀다. 첨단 기법도 부작용 제어를 못하면 무의미하다. 마구잡이 공천 풍토는 자당에 유리한 나꼼수 진행자의 ‘지역세습 공천’으로 직행하는 정언 유착을 낳았고, 진보당은 김지운 비례대표 예비후보의 ‘해적기지’ 망언을 낳았다. 신문들은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참신성’을 구실로 경륜과 정치적 타협능력을 자랑하는 여야 다선·중진들이 단칼에 잘려 選數가 적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치게 될 경우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미흡했다. [국문]

6면에서 이어집니다.

고고학 신화학 언어학 인류학이 공동 참여하는 학제적 작업은 벽에 부딪힌 광개토왕 연구의 새지평을 열 것이다. 광개토왕비가 한중일 삼국학계의 공동연구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1883년 일본 군참모본부 사코 카게야키(酒匂景信)중위가 즈안에서 광개토왕 탁본을 한국 및 중국 침략을 준비중인 일본 군참모본부에 보고, 이 탁본을 임나일본부설의 결정적 자료로 이용했던 엉뚱한 출발에서 비롯된다. 6.34m의 거대한 화강암 자연석 4면에 광개토왕 업적을 강건한 예서(隸書)로 1천8백2자 음각(글자 크기 12㎢, 음각 깊이 6mm)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비에 왜(倭) 관계 기록이 3백82

자가 보여 일본 서기 신공기(神功紀) 49년 가야 7국 평정 기사를 입증하는 금석문이라고 일본 학계는 흥분했던 것이다. 동경제국대학 鳥居龍藏교수를 비롯하여 關野貞, 今西龍, 黑板勝美 등 당대 제1급 사학자가 광개토왕연구에 참여, 이들은 광개토왕비를 통한 임나일본부설 전파뿐만 아니라 식민사관 수립의 전위대들로 해방 후 한국 사학계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주었다. 일제는 東京大 白鳥庫吉 교수의 건의로 광개토왕비를 동경으로 옮기려고 준비하다가 포기하기도 했다. 이진희 교수가 1972년 임나일본부설이 허구임을 밝히자 京都大 上田正昭 東京都立大 旗田巍교수 등이 동의하고 83년 경향신문주최 한일고대사세미나에 참석했던 旗田巍교수는 일본학계의 한국고대사 왜곡을 사죄하기

도 했다. 이진희 교수의 임나일본부설 재검토 촉구 후 한일 양국에서 많은 가설이 나왔으나 2007년 김현구 고려대교수가 임나일본부를 운영한 주체는 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아니고 백제였다고 밝힌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 김현구 교수는 백제 수도 한성이 고구려 장수왕 공격으로 함락된후 구원을 청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왜인 蘇我滿智로 귀화한 것으로 일본학계가 추정하는 백제인 목만치(木滿致)와 목라근자(木羅斤資) 부자가 369년 가야7국 평정, 382년 대가야 구원, 임나 전횡 등 가야를 통치 경영했던 역사적 사실을 왜인으로 귀화한 蘇我滿智가 야마토 정권의 지휘를 받고 했던 것처럼 건강부회한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정치하게 규명했다. 임나일본부설 논쟁으로 광개토

왕의 백제·왜·가야 정벌은 소상하게 밝혀졌으나 광개토왕 증조부(미천왕) 조부(고 국원왕) 3대에 걸친 고구려와 선비족의 요동지역 혈전은 선명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고국원왕 12년(342년) 전연 모용황이 환도성에 침입, 미천왕 부인 고국원왕 부인과 5만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미천왕 시신까지 약탈해갔고 광개토왕도 9년 11년 13년 14년 15년 17년 후연을 공격하고 보복했던 기록이 보인다. 광개토왕의 후연과의 전쟁을 비롯해 글안 부여 숙신 정벌 연구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왜곡한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빼앗긴 압록강 건너 북방 영토에 대한 연고권을 확보하는 기초 작업도 될 것이다. 광개토왕의 동북3성 정벌 지역을 국내학자의 연구로 소상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문]

제22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수상작 발표

대한언론인회가 신문 보도사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신문사진 인간애상’ 제22회 수상자로 대상에 ‘어머니’의 연합뉴스 노승혁기자, 우수상에 ‘첫 번째 이자 59번째 생일’의 연합뉴스 사진부 신영근기자, ‘Pyeongchnng’의 연합뉴스 사진부 이상학기자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에는 ‘포기란 없다’의 경남신문 사진부 김승권기자, ‘어린 3남매 어찌하라고’의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기자, ‘아이구 내새끼’의 서울신문 사진부 이종원기자, ‘중국, 이 소녀의 눈물을 보고 있나!’의 중앙일보 사진부 김성률기자,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가족’의 뉴시스 사진부 서재훈기자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대상 우수상에 버금가는 작품실력으로 소재의 발굴, 서터 찬스, 카메라 앵글, 구도의 정리 등을 조금만 노력하면 입상 가능한 기사임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며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3회의 장려상 경력이면 우수상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시상식은 4월 6일(금요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거행된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민주혁명 격동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 기록을 담았던 60년대 사진 기자들의 모임인 한국신문사진동우회(초대회장 최경덕)가 1991년에 제정했다.

이 상(기금 1억원)은 과거 취재일선에서 활동 할 당시 신문 사진에 ‘인간애’를 투영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느꼈던 원로기자들이 후배 사진기자들이 ‘인간애’ 구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취지를 살려 제17회부터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가 작품선정을 해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주관으로 시상하고 있다. [K]

심사평 가슴으로 보고 머리로 찍어라

올해도 예년처럼 전국 신문·통신사의 사진기자들이 뉴스를 쫓아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누비며 인간애의 소중함을 담은 보도사진들이 대거 응모했다.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중국어선의 난동, 외항선을 습격하는 ‘중동 무장해적선의 폭행’ 등 해외 사진을 포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여파 등 시대적 상흔(傷痕)이 담긴 사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반면에 ‘쓰러진 인간애’와 달리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피~용 창!’(PYEONGCHANG)이라고 발표하는 순간을 담은 유치위원들의 흥분과 환희의 표정, 그 가운데 과로로 심신이 지쳐있는 김연아 선수의 사진은 진한 인간애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세계대통령’에 재선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충북



박용운

·본회 원로회우
·한국 신문사진 동우회장

음성군 행치마을의 90세 노모와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은 ‘그 어머니에 그 아들’로 한국인의 효(孝)와 모정(母情)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받은 59번째 생일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

었다. 새로 탄생한 ‘제2의 생명’ 의미로 생일 케이크에 초1개만 꽂아 더욱 눈길을 끄는데 인간승리의 사진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올해는 응모작의 질과 양에 맞춰 대상과 우수상(2점) 외에 장려상 5점을 추가로 선정했다. 작품심사 결과 공교롭게 대상과 우수상은 모두 연합뉴스사 기자들이 차지했다. 타사 기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 눈물 다시 없게’ 등 메시지가 담긴 좋은 보도사진들이 수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K]

대상



어머니 노승혁(연합뉴스 사진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8월14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 행치마을을 방문, 어머니 신현순 여사와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다.

장려상



어린 3남매 어찌하라고 박영대(동아일보 사진부)

인천해양경찰 특공대원인 고 이청호 경사의 유족이 12월 12일 오후 인하대병원 영안실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인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작전을 펼치다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장려상



중국, 이 소녀의 눈물을 보고 있나 김성률(중앙일보 사진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해양경찰청으로 엄수됐다. 영결식 후 운구차에 이 경사의 시신이 실리는 순간 “문 닫지마. 지금 아니면 우리 아빠 얼굴 못 보잖아!”라고 외치며 오열하는 딸 지원(14)양을 외할머니 허길수씨가 붙잡고 있다. 이날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려상



아이구 내새끼 이종원(서울신문 사진부)

하루 평균 22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앞은 오전 10시 면회시간만 되면 아이를 보려는 산모와 가족들로 북적인다. 커튼을 젖히고 아기의 번호를 보여 주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아기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면회 온 사람들 틈으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시상 4월6일 프레스 센터

우수상



첫번째이자 59번째 생일 신영근(연합뉴스 사진부)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아덴만의 영웅' 삼포주열리호 석해균 선장이 59번째이자 다시 태어난 첫번째 생일을 맞아해 병원측에서 준비해준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우수상



PYEONG CHANG 이상학(연합뉴스 사진부)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겨 퀸' 김연아가 유치위 대표단과 함께 8일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탈진, 입국장에 홀로 앉아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장려상



포기란 없다 김승권(경남신문 사진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3일 오후 경남 창원실내수영장에서 경기도 푸른중 김세진군이 배영훈련을 하고 있다.

수상소감

대상



노승혁

(연합뉴스 사진부)

‘어머니’를 대상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연임 확정후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방한했다. 반 총장은 5박6일간의 바쁜 일정중 마지막으로 14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윗행치 마을을 찾았다. 이날 고향마을에는 이른 아침부터 ‘세계의 대통령’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명의 국민과 내외신 방송 기자 60여명이 열띤 취재를 벌였다. 연임 때문인지 경호원들의 경호도 예전 보다 한층 강화됐고 무엇보다 기자들의 취재 동선이 제한 돼 근접 취재가 불가능했다.

기자는 어머니 신현순(91) 여사가 반기문 총장을 기다리던 행사장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 학수고대 하던 아들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아흔 노모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금의환향한 아들을 꼭 끌어 안았다. 노모의 얼굴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애정이 서렸고, 노모의 지극정성은 반 총장을 지탱하는 힘이 었다. 심사를 맡으신 원로 언론인 선배들의 따뜻한 시선에 감사 드립니다.

우수상



신영근

(연합뉴스 사진부)

그는 몸 여기저기에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의식 없이 나와 만났다. 이어 의식을 차린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시 태어난 첫 생일을 함께 했으며 재활훈련을 통해 그가 일어난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처럼 환한 웃음을 머금은 그가 손을 흔들며 병원을 떠나는 것이 나와 마지막 만남이었다. 처음은 2011년 1월이었으며 마지막은 11월이었다. 그의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나와 카메라는 함께 했다.

그는 석해균 선장이다. 열 달이었다. 사진기자에게 그는 항상 주의와 관심을 뒤야할 존재였다.

좋은 사진을 선사해준 취재원이기도 했지만 낙종의 쓰라림을 안겨줄지도 모를 불안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사진기자나 언론의 입장을 떠나 그에게 감사한다. 온 몸으로 총알을 받아들이며 책임져야할 선원을 구한 영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그 스스로 -물론 의료진의 노력도 있었지만- 끝끝내 고통을 이겨내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 내게 생명의 강인함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다. 그가 늘 건강하길 기원한다.

우수상



이상학

(연합뉴스 사진부)

지난해 7월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준 뉴스는 단연 평창 2018동계올림픽 유치였으며 그 유치 성공의 한 가운데는 ‘국민영웅’ 김연아가 있었습니다. 평창 유치 위 홍보대사를 맡은 김연아는 피겨 금메달리스트 이상의 투혼을 발휘, 임무를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더반 IOC 총회에서 김연아를 원거리에서 취재하며 화려한 조명 속 이벤트적인 겉모습보다는 국가적 대사를 수행하는 21살 인간 김연아를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IOC 총회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 입국장 한 모퉁이에서 우연히 축 처진 모습으로 한숨을 내쉬고 앉아 있는 연아를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바로 저것이 국민의 염원을 성공시킨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에 대한 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마 저런 장면이 아닐까하는 생각과 기대감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진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격동의 시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을 지켰던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인 만큼 포토저널리스트로서의 시대정신과 책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피부색이 달라도

서재훈(뉴시스 사진부)

7월 6일 오전 서울 동성중학교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종로구와 함께 해외입양가족 모국방문단 75명을 초청해 ‘한국 학교 체험 행사’를 개최, 체험 행사 도중 한 입양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자 양아버지가 정성스레 안아주고 있다. 이 어린이는 행사 도중 갑자기 자기를 낳아준 친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났다고 했다.

‘사건기자의 꽃’ 시경 캡 3번… “노인 자

金玉吉 이대총장집에 기거

평양 제2중학교(平壤高普)를 졸업한 열일곱 살 鄭光憲은 1948년 청운의 꿈을 안고 혈혈단신 남하했다. 서울에서 그가 머문 곳은 金玉吉(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자전문학교 사감 집. 금광사업을 하며 면장을 하던 김옥길의 부친 金炳斗씨와 광산자재를 취급하며 철강대리점을 운영했던 정광현의 부친 鄭基福은 의형제 세교지간이었다. 金옥길 전 총장의 동생 金東吉 연세대명예교수는 정광현 보다 두 살 위. “유일하게 형님으로 호칭한다”는 것.

정광현의 목표는 연세대 편입이었다. 학제가 바뀌고 편입시험 6일 전에 6·25 한국전쟁이 터져 그의 꿈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사춘기 시절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던 단국대에 들어갔다. 육군본부 헌병으로 5년간 군 복무를 마칠 무렵, 신문기자가 되려고 ‘서울신문학원’을 이수했다. 서울신문학원은 당시 신문기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통로였다.

1947년 언론인 양성을 목적으로 문을 연 ‘조선신문학원’은 郭福山이 설립했고, 연희대학교 총장 白樂濬, 새한민보 사장 薛義植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吳蘇白, 金庚煥 등 언론인들이 참여했으며 신문기자에게 필요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실무과정을 포괄적으로 가르쳤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가 ‘서울신문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수복 뒤 언론학이 4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정착,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鄭光憲은 서울신문학원의 추천을 받아 조선일보 연수생으로 들어갔다. 요즘의 인턴기와 비슷하다.

연수를 마친 그는 1958년 5월 조선일보 견습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때 나이 스물아홉. 편집국에서 부국장까지 13년, 총무국과 공무국으로 옮겨 국장, 이사 14년, 조선일보 부설 ‘朝光出版印刷會社’를 창설하여 대표이사 사장 14년 등 41년 동안 조선일보 울타리에서 지내다가 1999년 1월 일흔 살로 퇴임했다.

국방부 ‘탈모비누사건’ 등 특종

꽃샘바람이 심술을 부리던 지난 3월 14일 낮 鄭光憲 본회 회우를 프레스센터 로비에서 만났다. 갈색 콤피에 노란 조끼를 받쳐 입고, 짙은 갈색 행커치프로 포인트를 살려 한껏 멋을 부려 여든 두 살이 믿기지 않는다.

-편집국 부국장과 야간국장 등 관리직을 빼면 일선기자로 활동한 기간은 9년입니다. 그 기간 ‘시경 캡’을 세 번이나 맡았었지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시경 캡을 세 번 맡은 것은 유일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사건기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趙東午, 魚壬泳 선배도 시경 캡을 두 번 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회부 기자의 꽃’으로 불리는 시경 캡은 서울 지방경찰청을 출입하며 사건팀을 지휘하는 사건데스크로 지면 결정에 많은 역할을 한다. 당시 신문사 지프 2대 가운데 한 대는 사장이, 한 대는 사건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5〉

회우초대석

鄭

인터뷰 글 · 사진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게 의한 자원봉사에 보람을 느낀다”는 정광현 회우.

48년 단신 월남… 신문학원 연수생 거쳐 조선 사건 데스크로 명성… 공무 담당하며 신문인

에 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는 자유당 시절인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 군사정권까지 시경, 법조, 특검, 혁검, 내무치안 등을 출입하며 사건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鄭회우는 “최첨단 취재시스템을 갖춘 요즘에 비하면 그 때는 선사시대 취재와 마찬가지로 고작. 을지로 3가 중부경찰서를 출발하여 동대문 경찰서, 종로 경찰서 등 9개 경찰서를 돌고 신문사로 돌아오면 전차표 10장이 다 떨어졌다는 것. 1961년 6월 시경기자실이 폐쇄되는 바람에 “길거리를 떠돌다가 종합병원 시체실을 취재원으로 개발하여 밤새 숨진 사건사고를 체크하던 것은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 때는 창경원 사슴뿔을 베어가던 것도 기사가 됐다.

-‘선사시대’ 같은 취재환경 속에서도 기

여나는 특종은?

“1958년 법조 2진으로 있을 때, 국방부 ‘탈모비누사건’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 특종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탈모비누사건’이란?

“비누에 양젖물 등을 많이 섞어 군인들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칼이 많이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불량비누를 군납한 사건이죠.”

-국방부에서 재판기록을 빼다니요?

“국방부에서 자체 수사 후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군법회의에 넘기고 민간인 관련자들은 검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송치한 것이죠”

-1만부 분량의 수사기록을 빼돌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貞洞 법원 건물 1층에 경비실과 기자실, 서기국이 있었어요. 서기국에 들러 사건 기록을 창문틀에 올려놓은 뒤 밖으로 나와 경비의 눈을 피해 무단 반

출했다”며 웃는다. 백지에 약도까지 그려가며 상황을 꼼꼼하게 설명한다. 조선일보 특종을 부러워했던 서울신문 모 기자가 ‘재판기록 모방 탈취’를 시도하려 사건과에 잠입했다가 들켜 도둑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게 기자의 역할. 3·15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 정치적 사건도 많았다. ‘12시 파고다’. 언론사 전화도청이 심하던 시절 사회부장에게 걸려 온 암호 같은 전화제보다. 파고다공원으로 달려갔다. 동아일보 시경 캡 李孝植 기자가 먼저 와 있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제보를 받았던 것. ‘반독재 민주투쟁’ 내용이 담긴 뼈라가 떨어졌다. 방증은 없지만 심증은 민주당. 당시 선전부장은 曹在千 의원, 차장은 金大中(DJ)씨였다.

4·19 때 술한 사상자를 내고 계엄령

원봉사에 큰 보람

光憲

- 전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이사, 공무국장
- 전 (주)조광출판인쇄 사장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이 선포되던 날 밤. 동대문경찰서가 습격당했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申東濤 사회부 기자, 鄭範泰 사진부 기자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다. 종로 4가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던 중 趙光集 운전기사가 총탄에 맞아 순직한 사건은 잊히지 않는다고 술회한다.



저서 ‘新聞印刷技術’은 1977년 제1회 한국신문상을 받았다.

조선일보 기자로 인쇄 새장 열어

花無十日紅 일선 취재 9년

-시경 캡을 세 번이나 했는데 일선 취재 9년은 짧은 게 아닌가요?

“(하하)시곶말로 물먹은 거죠. 첫 번째 요인은 시경 캡 세 번을 하면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건방져졌어요. 파이프 담배를 물고 멧을 부렸죠. 당시 수집한 파이프가 100개가 넘었거든요. 당시 모 기관장이 사장에게 귀띔까지 했어요.”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1962년 내무부 대변인 스카우트설이 나돌아 눈 밖에 났다고 한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韓信 씨(당시 육군 소장). 대쪽 같은 성격에 청렴 결백하고 신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홍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기에 거절했다는 것.

“언론계를 떠나 사업이나 하려고 생각하던 와중에 중앙일보 창간을 앞두고 면접까지 보았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지방부장(1966년)으로 승진되는 바람에

조선일보에 눌러 앉았다. 대신 김천수 지방부장을 추천해 줬다는 것. 중앙일보 창간 당시 스카우트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실명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인터뷰와는 거리가 있어 기사화 않지만 기록으로 남길 가치는 있다.

-그 뒤 편집부국장 겸 야간국장(1969년)을 마지막으로 편집국을 떠나 총무국 부국장 겸 자재부장으로 가게 된 동기는?

“金桂元 중앙정보부장 시절 공보관실 스카우트설이 외부로부터 떠돌아 바람을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총무국 부국장 겸 자재부장 시절의 일화 한 토막. 1971년 김대중 씨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조선일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方 사장에게 “정광헌 기자 요즘 어디 있나요”하고 물었다. “총무국에 있다”는 답변을 들은 DJ는 임원실과 나란히 있던 총무국에 들러 “난세에는 관리직이 살아가는 데 편리하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 주고 갔다고 한다. “일찍이 바람을 맞았으나, 인내하면서 한 우물을 판 덕에 41년이란 기록을 세우며 장수를 했다”고 강조한다.

이사 거쳐 ‘朝光’ CEO로

-공무국장과 공무담당 이사로 14년 일한 것을 보면 노하우가 많으셨던 건 아닌지요?

“일본어 신문을 보면서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대부분 인쇄관련 시설이 일본제품에 신문판

집 용어도 일본식이 많잖아요. 1975년 일본신문기자재전시회(JANPS)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니 동아일보 공무국장은 남한에서 오고, 나는 조선일보에서 왔다고 하니 북조선(북한)에서 온 줄 알던 그런 때였죠. 어쨌든 인쇄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고, 그 당시 가져온 일본 서적을 참고자료로 ‘新聞印刷技術’(1976년·조선일보사)을 출간했습니다.”

활판편, 사진제판편, 인쇄편 등 3장으로 구성된 저서는 1977년 제1회 한국신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인쇄사상 처음으로 인쇄 전반에 걸친 기술을 체계화하여 신문인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수상 이유다. 또한 노무관계를 다루는 저력과 공무국을 장악한 리더십을 회사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다는 게 부연 설명. 그는 ‘포도청(경찰)’ 출입을 하면서 카리스마를 터득한 것도 보탬이 됐다고 한다.

-사건기자로 출발하여 이사를 거쳐 CEO로 마무리 했는데...

“당시 조선일보사에서 지출하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비용은 연간 60억원 규모였어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쇄시설을 갖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당

太平路에서

꼼수가 활개치는 세대



최병요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프로의 바둑에는 가끔 묘수라는 게 등장한다. 사활의 궁지에 몰린 대마가 고심 끝에 나온 기막힌 한 수로 기사 희생해 판세를 역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바둑의 격언에는 ‘한 판에 묘수가 세 번 나오면 패한다.’는 말이 있다. 거듭된 묘수는 오히려 판세에 해를 끼친다는 뜻인 게다.

신수(神手)라는 것도 있다. 10만 판을 두어도 한 수 나올까 말까하는 극히 드문 수로 입신(入神)의 경지라는 九단도 평생에 한 수 만들 어낼까 말까하는 경지 높은 수를 말한다. 판세를 승리로 이끄는 고수의 작품이랄 수 있다.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묘수도 신수도 안 되면 꼼수라도 두어라’며 채근한다. 꼼수가 묘수와 신수보다 더 유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판세에 웬 집착이냐고 비아냥한다. 바둑에서 꼼수란 전혀 수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무심코 대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속여 승리하려는 알팍한 노림수를 일컫는 것이다. 당연히 점잖은 사람이라면 기피해야 할 태도다.

‘꼼수’란 비속어다.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평소 꼼수나 부리는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심하면 사람 죽에 끼어주지도 않는다. 지성인의 세계에서는 ‘꼼수’라는 말 자체도 입에 올리기를 기피하는 게 상례다.

그러한 ‘꼼수’가 요즘 세간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어느 점잖지 못한 사람이 ‘X꼼수’라는 인터넷 세상을 열어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 서부터다. 유포되는 내용도 사안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신상 털기 등 주로 개인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흥미 위주의 까발리기 또는 침소봉대식의 덮어씌우기를 일삼는 것이 주다.

그 무책임성을 탓하려들면 끝도 없는 지경이니 새삼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정계 관계의 내로라하는 유력자들마저 말끝마다 ‘꼼수’를 들먹이고 있

는 상황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다.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좀 당했다 해서 상대방을 겨냥해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런 얌은 수작으로 나를 속이려 드느냐’는 힐난이어서 시정잡배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모르겠지만 ‘꼼수’라는 힐난을 당한 사람 역시 ‘너야말로 꼼수 부리지 말라’고 되받아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의 전직은 시정잡배였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제법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누리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던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국가와 민족을 들먹이며 국민에게 멸공 봉사하겠다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자세를 낮출 줄도 알았던 위인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그들을 비겁한 말을 입에 담는 시정잡배 같은 꼴로 전락시켰을까. 아마도 욕심 때문일 것이다. 사람 나이 50이면 지족(知足)이라 했거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스스로 자중할 줄 알아야 하는 터수에 탐탁찮은 일에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한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세상이 어찌다 행동은 물론 언사조차도 앞가림할 줄 모르는 이런 지경으로 함몰돼 가는지 선현들과 후학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국문]

시 尹靑榮 고문도 같은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창설한 것이 ‘朝光出版印刷會社’였고, 尹 고문이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빗나가고 제가 대표이사 사장을 맡게 됐어요.” 鄭 회우는 1975년 조선일보 컬러신문 인쇄를 비롯하여 14년 동안 인쇄기술의 노하우를 펼쳤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동길 교수가 운영하는 (사)태평양시대위원회 연구위원과 교수로 강의를 가끔합니다. 또 平壤高普同門會誌 ‘大同江’(연간·신국판 508P)편집인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요” 會誌는 내용도 풍부하고 장정이 깔끔하다. 미 의회 도서관에도 납본됐다는 것. 지난 10여 년 동안 병원과 양로원에서 노인 수발 등 성당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자원봉사에 보람을

느끼며 산다”고 한다. 담배는 1992년 장과열 수술을 받을 때 끊었고, 술은 여전히 가볍게 마신다는 것. 인터뷰를 하면서 청하 1병을 비운다.

-봉사활동을 하려면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 돼야 하지 않습니까?

“봉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노력 봉사에 돈이 듭니까? 3남매 출가시키고 노부부가 살 여력은 됩니다” 학창시절 럭비와 권투 등 와일드한 운동을 즐겼다는 鄭 회우는 헬스센터를 20여 년째 꾸준히 나가며 건강을 유지한다.

서울고검 출입당시 검사장실에 근무하던 南姬子(75)씨와 결혼, 슬하에 3남매. 생명공학을 전공한 장남 우석(50)씨는 건국대 교수, 만사위 조영호씨는 서울의대 출신 암센터 의학과과장, 둘째 사위 이동호씨는 두바이에서 무역업을 한다. [국문]

침입한 이(異)물질, 곧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는 면역 ‘글로브린’으로 불리는 단백질인데 Y자 모양의 구조로 되어있고 혈액이나 임파액속에 들어있다. 항원이 침입하면 항체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끼우듯이 꼭 끼워(결합)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항원에 대한 항체반응이며 항원에 항체가 들어붙게 되면 항원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경우 파괴되거나 녹아버리는 용균(溶菌)현상이 일어난다. 항원이 제거되는 것이다. 항원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성물질인 경우 항체가 들어붙어 무독화(無毒化)함으로써 덩어리쳐서 몸 밖으로 배설된다.

여기에서 특이적인 현상은 특정한 항원에는 특정한 항체만이 들어붙는다.

곧 항원과 항체는 1대1의 대응관계라는 것이다. 특정한 자물쇠에는 특정한 열쇠만이 작동하는 것처럼 일정수의 항체가 모든 형태의 항원에 맞는게 아니라 모든 이물질(바이러스 등)이 각기 다른 항원이 될수 있으므로 항원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거기에 대응하는 항체의 종류 또한 무수히 많게 된다는 것이다. 수 많은 항원에 대응해서 수 많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노벨상을 수상한 ‘도넬과 이론’의 핵심이기도 해서 더이상 접근하면 초입은 몰라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동굴속 같아진다.

요컨대 면역기능이란 자기(自己)가 비자기(非自己)를 식별해서 비자기를 배제(排除)하는 시스템인데 이 대목은 단순 명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자기에 대해선 관용을 베푸는 듯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트집(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전쟁때 전폭기의 오폭(誤爆)으로 자국민을 살상하는 것 같은 망발도 일어나게 된다. 암의 경우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미친 변이(變異)세포 하나가 시작해서 숙주(宿主)를 거덜나게 하는 사업인데 초기에는 면역세포가 대들어 죽이기도 하지만 일단 덩어리(colony)를 이루고 나면 배제하지 못하느니? 이는 면역계의 관용인지 아니면 암세포가 영양해서 그러는지는 책을 털어읽어서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식민지를 만드는 암은 제국주의자인 모양이다.

관용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다. 예컨대 같은 세균이라도 병원성(病原性)대장균인 O-157이나 티푸스균, 페스트균 등에 대해선 면역 시스템이 반응해서 균체(菌體)자체를 파괴하여 배제하는데 사람의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腸內)세균은 배제하지 않는다. 장속에는 1백종류, 약 1백조(兆)개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들 세균은 마치 여름 풀썩처럼 떨기를 이루고 있어 장내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⑬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 (中)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세균총(叢)이라 부른다. 세균총은 대별(大別)해서 유익균(有益菌)인 비피더스균과 유해균(有害菌)인 웰슈로 나누어지지만 장내세균은 본래 태어날때부터 지니고 있던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비자기’로 식별될 터인데 면역기능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공생(共生)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보고 있다.

그 첫째는 장내세균의 세포벽에는 균체성분으로서 어떤 물질이 있어 이것이 면역계의 공격을 방지하는 신호작용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판단. 또 한가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비자기’가 위험한

아니라 쓸개없는 사내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들었다. 알고보면 의사가 제일 무섭다. 허가받고 칼을 쥐고 있으니까.

면역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지는데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연 면역’이라는 이른바 자연치유력이고, 또 하나는 옵션(option)으로 익혀가는 획득

면역이다.

예컨대 예방접종에 의해 감염증에 대응하는, 살아가면서 몸이 익혀(획득)가는 면역력이다. 획득면역은 1회전에 선 무승부로 끝나지만 2회전부터는 상대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 생성 돕는 생활습관 기르자

적대분자인지 또는 공생을 허락해도 될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면역계의 기능인데 이를 ‘위험이론(Danger Theory)’으로 밝힌 과학자가 ‘폴리 마칭거’다. 학생시절에 ‘플레이보이’지(誌)의 커버 걸이 된 적이 있다는 여류생물학자인데 이런걸 두고 재색겸비(才色兼備)라 하는 것인지. 책을 읽다보면 난데 없이 구경거리를 만나 잠시 쉬는 수도 있지.

면역기구와 그 기능에 관한 이론은 너무 넓고 복잡해서 자칫 옆길로 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면역계에 관련된 편도(扁桃), ‘아데노이드’로 불리는 인후편도, 충수(忠垂·맹장), 흉선(胸線), 비장(脾臟)을 적출, 파괴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도 40여년 전에 몇 모르고 의사말만 곧이듣고 편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이 잦고 해서 어떤 대학병원에 갔더니 편도를 잘라버리면 낫는다고 했다. 편도도 면역기관이라 그 뒤로 걸핏하면 걸리는 감기때문에 늘 고생이다.

요즘도 과감한 의사가 있어 쉽사리 쓸개를 털어내는 바람에 쓸개 빠진게

지지 않는 싸움이 된다.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몸속에서 발생한 암세포같은 이상사태를 늘 감시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이 자연면역의 수비범위이며 바이러스에 감염한 경우 싸워서 질병을 제압하는 것은 획득면역의 장기(長技)라고 할수있다. 이 두계통의 면역기능은 각각의 면역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으로 유지된다.

인체를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면역시스템의 중요부분을 감당하는것이 백혈구라는 세포다. 적혈구나 혈소판(血小板)외의 세포를 통털어 백혈구라 부르는데 백혈구에는 여러 패거리가 있어 제각각 장기 분야를 가지고 면역시스템 안에서 활동한다. 그 패거리는 임파구, 과립구(顆粒球), 마크로파지로 나누어 지고 임파구는 T세포나 B세포 NK세포 등 개성적인 전투능력을 지닌 멤버로 분류된다. 임파구에 속하는 B세포는 골수(骨髓·Bone marrow) 세포란 뜻이다. T세포의 지령을 받아 공격용 항체(면역 글로브린)를 만들어낸다.

T세포는 흉선(胸線·Thymus)에서 만들어지므로 T세포다. 흉선은 심장의

앞쪽에 달개 모양의 비켓덩어리처럼 된 기관인데 T세포의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식도락 책엔 짐승의 흉선은 대단히 맛있는 진미(珍味)로 소개 되어 있으니 어리둥절하다.

NK세포는 싸움꾼이다. 면역책에는 그냥 NK세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내가 명명 하기로는 자객세포다. NK세포(Natural Killer Cell)이름 그대로 킬러이기 때문이다. NK세포는 꽤 크다.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킬러다. 암세포의 표면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죽이기도 하고 통째로 집어 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로파지는 일명 대식(大食)세포다. 아메바 같은 속수를 지니고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바이러스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탐식능(貪食能)을 지니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엔 마크로파지 세포가 아메바같은 긴 팔을 뻗어 암세포를 휘감아 죽이는 사진이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엔 암세포의 역습으로 마크로파지 세포가 죽는 사진도 있다. 과립구나 임파구에게 외적의 침입을 알리기도 하며 임파구가 한바탕 싸워서 외적을 죽이면 그 뒤치다꺼리를 담당하기도 하며 혈관벽에 들어붙은 악질(LDL)콜레스테롤을 배터지게 훑어서 먹고는 죽어버리는 충용(忠勇)한 대식가다.

백혈구 중에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것이 과립구이다. 백혈구 전체의 약60%를 차지하는 이유는 인체에 빈번히, 대거 침입하는 것이 세균이므로 세균과의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과립구이기 때문이다. 세균이 침입하면 과립구는 싸워서 화농성의 염증을 일으키므로 상처가 끓는 것은 과립구가 싸우고 있는 현장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임파구가 세균과 싸우는 전술은 연합플레이로 역할을 분담해서 각개 격파한다. 마크로파지나 과립구는 항원을 통째로 집어 삼키지만 외적이 너무 작아 먹기가 어려울땐 임파구가 나서서 미소(微小) 항원과 싸우게 된다. 정보전달물질인 ‘사이트카인’을 분비해서 T세포나 B세포에게 사태를 알리는 헬퍼(Helper)T세포도 있고 항원에 접근해서 분해효소 ‘파포린’을 뿜어 항원을 중화(中和) 시켜버리는 킬러T세포도 임파구와 연합 플레이로 항원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이다.

이렇게 보면 인체의 방위기구는 거의 완벽해서 항원의 활동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곧 다지방 고단백의 식습관으로 과체중이거나, 과음과식, 격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겹치면 항원 차단은커녕 외적 앞에 성문을 열어 놓은 형국이 될 것인즉 면역력은 아예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4]



본회 기우회 올 첫 분기 바둑모임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지난 3월26일(화) 오후 2시 종로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2012년도 첫 분기 바둑모임을 가졌다(사진). 이날 모임에는 이억순, 문준호, 백환기, 이종기, 이성호, 김윤석, 정기정 회우 등

이 참석, 361로의 바둑관 위에 그려지는 흑백의 오묘한 변화에 흠뻑 젖어 늦게까지 골중지락(橋中之樂)을 즐겼다. 수담이 끝난 후 국립관에서 막걸리와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19대 총선 등 풍성한 얘기를 피웠다. [4]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바로 조제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약국은 어디 있을까요?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내 손안의 건강지킴이 **스마트처방전**

- ☑ 어려운 처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 ☑ 자주 다니는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조제 예약까지 앱으로 가능
- ☑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4만여 개의 약품 정보를 통해 이름, 종류, 효능 등 열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및 www.sktsmarthealth.co.kr에서 확인하세요

* T store,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처방전'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溫故知新

이순신의 리더십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오는 4월 28일은 이순신(李舜臣) 장군 탄신 46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장군의 묘소와 사당인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시는 성웅이순신축제를 개최한다. 경남도는 거제 칠천량 앞바다에서 꾸준히 거북선 발굴 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칠천량은 임진왜란 중인 1597년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元均)이 왜수군의 공격을 받아 거북선과 판옥선 등 주력 함대 160여 척을 잃고, 수군 1만여 명이 전몰한 곳이다. 치욕적 패전의 현장이지만, 그만큼 거북선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원균의 칠천량 패전으로 조선 수군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순신이 장병들과 피땀 흘려 육성한 무적함대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져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는 불과 13척의 판옥선으로 500척이 넘는 왜군의 대 함대를 물리치는 세계 해전 사상 유례없는 기적적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바로 명량대첩(鳴梁大捷)이다.

이순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는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必生則死 必死則生).” 이 같은 필사의 각오, 결사의 의지가 바로 이순신 정신이요, 이순신 리더십이다.

이순신의 비장하고 비상했던 일생에서 탁월한 위기 극복의 지혜, 출중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오늘과 같이 국난에 버금가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순신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이순신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무력전이든 경제전이든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낙오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위대했던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이순신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나라

와 겨레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한국인이었다. 그는 왕권안보에 병적으로 집착한 엽기적 국왕 이균(李鈞)-선조(宣祖)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임금보다는 나라와 겨레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고귀한 한복숨을 아낌없이 바쳤다.

나라 형편이 또다시 어렵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국민의 고통지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에 겹쳐 진보니 보수니 하는 남남갈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모두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이를 두고 난세요 국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난제가 켜켜이 쌓여만 가고 시국이 어지러운데 오늘 이 시대는 리더십 부재시대다. 총선과 대선은 눈앞에 두고 지도층 사람들은 나라 살리기보다는 허황한 공리공론과 사리사욕으로 허송세월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런 까닭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이순신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순신과 같이 탁월한 지도자의 비대한 통솔력과 살신성인한 구국정신이 더한층 절실하다.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외

적의 침범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선조들은 뜨거운 구국의 의지와 비상한 투지로 국난을 극복해왔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족적 기상을 높이 떨친 구국의 영웅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순신이야말로 그 술한 영웅·호걸·충신·열사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위인이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재앙을 당해 나라와 겨레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 내린 구세주였다. 그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54년의 길지 않은 일생을 보내는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충효·인의와 애국·애족 정신으로 일관한 민족의 큰 스승이었다. 전쟁에 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갖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전략전술로 백전백승한 불세출의 명장이었다.

그는 마지막 싸움인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고귀한 한복숨을 바칠 때까지 조국에 대해서는 지극한 충성심으로 헌신했고, 가정에서는 극진한 효성과 자애를 다했으며, 부하들은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감싸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등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현대는 무한경쟁시대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른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관계도 그렇다. 오늘날 국난의 위기에서 이순신은 절세의 명장, 구국의 영웅, 민족의 구세주라는 면모에 더해, 비상한 리더십을 갖춘 탁월한 최고경영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그는 단순한 명장이나 영웅의 차원을 넘어 참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던 출중한 경영자요 리더였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역사를 막론하고 역사는 통렬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역사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때 술한 잘못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출중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거북선으로 상징되는 탁월한 창조정신도 보여주었다. ‘난중일기’로 대표되는 기록의 중요성도 일깨워주었다.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아군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교훈도 남겨주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부하들을 친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한편, 군율은 엄하게 시행하고, 술선수범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처했던 온갖 악조건을 되돌아보라. 그의 적은 왜군 뿐만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는 그를 동인으로 간주한 서인 일파로부터 끊임 없는 시기와 모함을 당했고, 엽기적인 국왕도 그를 의심하고 그의 전공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 아군 중에서도 그의 인품과 전공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이순신의 편은 오로지 충용한 부하 장병과 힘없는 백성뿐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이순신이 살아남았다면 그의 노후가 편했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이순신이 전사를 자초했다는 자살설과, 전사를 가장하여 숨어 살았다는 은둔설까지 생겨난 것이다.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다시 한 번 그의 탁월했던 리더십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자.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박정진 회우 ‘철학 인류학 시론’ 1, 2



박정진 회우가 ‘철학인류학 시론’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 (1권)과 ‘소리의 철학, 포노로지’ (2권)라는 철학전문서 두 책을 펴냈다. 200자 원고지 1만장 분의 이 책은 한국의 자생철학으로서는 근래 보기 드문 성과로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고대의 천지인 사상과 음양으로 서양의 근현대 철학을 해석하는 한편 그것을 추월하는 철학적 대장정이다. 다시 말하면 서양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편 서양철학에게 새로운 출구나 피난처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된다.

이 책은 특히 한국철학이 그동안 신주처럼 모시던 칸트철학이나 니체, 데리다, 들뢰즈 등 서양의 근대철학과 후기 근대철학의 거장들을 자신의 철학적 잣대로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동양철학의 기(氣)철학을 바탕으로 ‘일반성의 철학’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비판에만 그친 철학계의 타성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일반성의 철학’과 ‘소리의 철학’이 한국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철학은 그동안 서구 철학을 도입하는 데는 열성을 보였지만 주체성을 세우는 데에 등한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독자적인 물음도 없이 철학하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상당한 명성을 얻은 철학자들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철학계의 현실이다. 이는 아마도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정작 스스로 철학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소리의 철학’은 표의문자인 한자 문화권 속에서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하

는 한글 문화권의 한국인이 세계에 철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철학적 요소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의 철학’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천지인 사상과 음양태극 사상이 어떻게 서양 철학을 넘고 새로운 철학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성취이다.

이번 두 책의 출간은 서양의 후기근대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존재의 문제, 이성중심주의의 궁극적 탈출문제 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을 동양권, 특히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에서 세

계 철학계에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외 철학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한국 대학들은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등한시하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근시안적인 산업 및 직업교육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여파로 여러 대학에서 철학과의 폐과되는 등 수난을 받는 가운데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동서고금의 철학을 회통하고 자생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형효교수(서강대 석좌교수·철학과)에게 바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철학의 쾌거로 여겨진다. 이 책은 그의 105번째 책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인류는 그동안 발전의 신화에 눈이 어두워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샤머니즘과 에콜로지를 다시 새롭게 끄집어내어 네오 샤머니즘(neo-shamanism)과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빠른 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수록 안전하고 쾌적한 길,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도로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막힘 없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 질 것이기 때문에...

빠른 길! 안전한 길! 쾌적한 길!
한국도로공사의 약속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2011년
고객과의 약속 실천**

빠른 길

- 순천~완주 신설, 신갈~호법, 진주~마산 확장
- 갓길 차로제 확대 및 교통정보 앱 개선

안전하고

- 졸음쉼터 설치(40개소)
- 고속 추돌기 도입, 이동 단속반 등 과적차량 근절

쾌적하게

- 휴게소 불법 노점상 철거
- 고속도로 앞돌 주유소 개시

2012 서울 행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

걷기가 최고의 보약

고령자에게 걷기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 걷기로 가장 이득을 보는 연령대가 바로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도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요, 식보보다 행보(行補)라 했다.

걷기(Walking)는 자전거 타기(Cycling), 수영(Swimming)과 함께 3대 완전운동 중 하나로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걷기는 우리 몸은 물론 마음의 건강에도 상약(上藥)이다. 걷기는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의 기능을 최대로 끌어 올릴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걷기만으로 우리 몸에 나쁜 콜로스테롤(LDL)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 벽의 신축성을 높여주며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장과 혈관질환을 예방한다. 산소공급능력을 높여 폐와 심장을 튼튼케 한다. 당대사를 원활케 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 뼈에 미네랄의 침착(沈着)을 도와주고 골다사의 호르몬 분비를 원활케 해줌으로써 뼈를 튼튼케 한다. 면역 능력을 강화하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고 노화 관련 호르몬 조절로 각종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암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병위험을 낮춘다. 다리 근육, 유연성, 자세 안정성, 균형 및 걸음걸이를 증진시켜 낙상사고에 따른 손상을 예방한다. 관절염 발생 위험을 낮추고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약물 못지않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가져다주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준다.

걷기는 하루 7천보, 주 3~4회가 통상 개념이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만보 이상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단 고령자는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량 조절이 필요하다.

8자형 걸음은 발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약간 벌어진 11자형 걸음이 좋다. 신발은 편하고 가벼우면서 발목을 감싸주는 것이 좋다. 집에서 가깝고 공기가 맑은 곳을 택하되 고령자의 경우 여름 너무 뜨거운 낮 시간과 겨울 온도가 너무 낮은 시간대는 피하도록 한다. [국문]

氣강의 인기... 4월에도 계속

토요건강포럼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많은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건강포럼’이 열렸다. 이날 강사인 맹필재 기공인은 “기공의 근본원리는 생각이 에너지라고 말하고 자기가 마음 두는 곳에 기(氣)가 일어나 극한 상황에서 무한대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필재 강사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에서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감응하는 것 보다는 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곧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맹 기공인은 누구든 무아지경이나 영성 수련으로 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기는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체감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으며 우선 마음이 편해지면서 심신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젊어진다고 생각하면 젊어지는 호르몬이 체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기는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 일명 “마음먹은대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맹필재 기공인은 기수련은 노년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으로 넓은 장소가 필요없으며 누워서도,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기수련을 거



氣 수련에 열중하고 있는 회우들.

치면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허리를 꼳꼳하게 해주는건 물론 하체를 튼튼히 해줘 낙상사고도 막을 수 있으며 골밀도도 좋아지고 혈류를 좋게하고 병에 대한 면역력도 높여주고 노년에도 성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맹필재 기공인은 이날 회원들에게 노년기에 좋은 기공술 몇가지를 시범과 함께 회원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 참석한 회원들을 즐겁게 해줬다.

한편 회원들의 요청으로 4월에도 노년기에 간단히 할수 있는 기공술의 실재와 실습시간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4월의 토요건강포럼은 14일(토) 오후 2시부터 을지로입구역 외환은행 앞 한국성과학연구소 홀(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강의가 끝난 후 회원 10여명은 토요건강포럼의 공동 대표인 이윤수 박사와 함께 근처에 있는 생맥주집으로 옮겨 기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국문] 이보길 편집위원

강명수 원로회우 별세

강명수 회우가 3월 10일 급환으로 별세, 12일 아침 서울 삼성병원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37년 9월 경북 달성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다복한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 했다.



국방송공사 이사, 카메라 취재부장과 보도위원, 검경신문 부회장, JC 광명지회장(초대, 2대)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특히 ‘상하이에 서 온 편지’로 특종 상을 받는 등 재직 중 활약이

고향 구지중학을 거쳐 용문고등학교 -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매스컴(정보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1967년 한

크게 돋보였다.

부인 방영옥 권사와의 사이에 아들 강태진, 딸 강미라, 사위 윤홍준, 외손자 유태일을 두고 있다. [국문]



강명수 선배를 추모하며

박 충(전 KBS워싱턴 특파원)

가스 형!

이게 웬 일입니까! 어떻게 천하의 형께서 넘어지셨단 말입니까.

더구나 넘어지셔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아마 형을 아는 모든 이들은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역시 형님은 형님 본 모습처럼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가스 형! 오래전 어느 취재 현장에서 타방송사 신입 촬영기자라고 인사드리자 “너 점심 먹었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쌍소리를 섞어서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정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스 형! 형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형은 예사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은 그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제가 KBS에 몸 담으면서 형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KBS 첫 야근하는 날 늦은 밤 형은 거나하신 상태로 야근자들의 야식을 준비해 주신 기억이 어제 같은데 이제 형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군요... 그때 야근하며 고량주잔을 들면서 형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야! 니 내 생활신조가 무엇인줄 아냐? 약자를 돕고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형의 별명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명수란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지만 늘 약자들 편에 서서 부글부글 끓고 계시던 형을 보면서 가

스명수란 별명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1989년도 KBS가 종파업 강행때 후배 촬영기자들이 카메라를 놓고 취재거부하는 걸 보시며 일반방송기자들은 나중에 통신이나 신문의 기사 인용도 가능하지만 우리촬영기자들은 역사적인 현장을 재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송출은 안 되더라도 기록은 해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더구나 작금 KBS의 파업을 보면서 가스 형이 그리워 지네요.

가스 형! 그렇게 예뻐하시던 외손자 태일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들 태진이 결혼도 안 시키시고 무엇이 바빠서서 그리 빨리 가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가스 형이 왜? 일찍 가셨는지... 형은 제가 회사를 옮겨온 후 첫 야근 때 말씀하신 “약자를 돕는다”는 생활신조를 실천 하 시려고 넘어지시면서 까지 일찍 가셨다고 확신 합니다.

가스 형! 형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형이 돌아가시면서 기증하신 간, 각막, 신장... 돈 없고 병든 젊은 환자에게 이식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형의 생활 신조이셨던 약한 자를 도우시려고, 그들을 살리 시려고...

형은 우리 곁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시고 영원의 길로 떠나셨습니다. 가스 형! 편히 쉬십시오! 저 세상에서는 모든 것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국문]

성병욱회우 가곡 CD 내놔

본회 회우이며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주필을 지낸 성병욱씨가 지난 3월 그의 첫번째 가곡집 ‘테너 성병욱 노래에 살고’ CD(사진)를 냈다. 여러 회우들이 그가 테너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성병욱 주필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해 줄곧 불러왔으며 중학교 때 교회 성가대에 참여하며 노래를 부르고 대학 댄 한 선배 음악가로부터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재즈 클래식을 배웠고 70세되던 해 바리톤 마영준 선생에게서 음악지도를 받으면서 음역을 넓혀 왔다고 한다. 그의 가곡집엔 성가와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곡 등 주옥같은 14곡이 담겨 있다. [국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

3농혁신으로

충남농어업의 희망을 열어갑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맛나는 삶의 터전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소비합시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허용될수 있도록 농어업 · 농어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회우동정

(가나다 순)

영월 미디어 박물관 개관



고명진(전 한국일보사진 부장)회우=4월 25일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1094번지 여촌분교에서 미디어 학습 체험관을 겸한 미디어 박물관을 개관한다. 영월 미디어 박물관은 한국언론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한다.

‘4·11 총선과 재외국민선거’ 특강



곽찬호(민주평통 광진구 사무국장)원로회우=2월 29일 대한민국6·25참전 유공자회 서울 성동구지회 운영위원 95명을 대상으로 ‘4·11총선과 재외국민선거참여 현황’을 주제로 특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대 위원장



권영빈(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회우=지난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 권신임 위원장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필, 사장과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MBC사우회 부회장



신대근(전 대구 MBC사장)본회 편집위원=2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MBC 2012년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

女기자 대동 박선영회우 격려



신동식(전 서울신문 논설위원)본회 여성위원장=3월 9일 오후 여기자들과 함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복송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박선영 회우를 찾아 격려했다.

화정 평화재단 감사 피선



어경택(전 동아일보이사)회우=지난 2월 8일 낮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열린 제14회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재주·본회회우) 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감사로 피선.

여야대표 초청 TV토론회



오건환(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회우=지난 2월 20일 박근혜 한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23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초청, TV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 소통아카데미1기’ 과정 수료



이보길(전 KBS해설위원)본회 편집위원=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대화와 소통의 문화확산을 위해 개설한 ‘2012 소통아카데미1기’ 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언론인 모임 회장 피선



전신병(전 동화통신정치부장)본회전문위원=3월 9일 열린 일산언론인 모임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모임에는 그동안 이모임 회장을 맡아 수고해준 김해도 본회 이사를 비롯, 정재호 본회 원로회우, 손세일 윤기병 정운종회우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여의도 클럽 ‘방송공헌상’ 수상



최창봉(한국방송인 이사장)본회 명예회우=지난 2월 1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든 호텔에서 열린 중견 방송인 연구모임인 여의도 클럽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방송공헌상’을 수상.

언론가 소식

신문사 NIE 사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올해 신문사NIE사업에 총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신문발전기금에서 신문사 NIE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지원은 자부담 10%이상 매칭펀드 방식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최고 4천만원이다.

동아일보 김재호사장 재선임



동아일보는 3월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김재호 대표이사 사장(발행인겸 편집인·사진)을 재선임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3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호 회장을 제43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부회장엔 조선일보 송필호 발행인, 매일신문 이창영 발행인, 전북일보 서창훈 발행인 등 4명을 선임했다.

문화일보 이병규사장 재선임



문화일보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문화일보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병규 사장(59·사진)을 임기 2년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이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서울아산병원 부원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국민일보 회장에 조민제씨 사장겸 발행인에 김성기씨



국민일보(주)는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회장겸 국민일보 이사회 의장에 조민제 사장(사진 상)을 추대하고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 인쇄인에는 김성기 편집인(사진 하)을 선임했다.

김성기 신임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일보 경제부장, 편집국장, 편집인 겸 논설실장을 역임했다.

YTN 배석규사장 재선임



YTN은 지난 3월 9일 남산 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배석규 현 사장(사진)을 차기 사장으로 재선임했다. 배사장은 경남고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동아 방송에 입사 KBS통일부 차장, 정치부장을 거쳤다. YTN입사해 경제부장, 워싱턴 지국장, 미디어 사장 등을 역임했다.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

관훈클럽(총무 김민배)은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SNS와 선거 보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2012년 양대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점검해 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신문 방송 통신사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 정신영 기자 추모행사

관훈클럽 신영기금은 4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관훈동 신영기금회관 2층에서 고 정신영 기자 50주기 추모행사를 갖는다.

정신영 기자는 동아일보 유럽특파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동베를린에 잠입해 1960년대 동서진영의 첨예한 대치 상황을 보도하는 등 우수한 기사를 많이 썼지만 1962년 독일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영면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77년 동생인 정신영 기자가 회원으로 있던 관훈클럽을 돕고 싶다며 1억원의 기금을 회사했다. 관훈클럽은 그 1억원을 기본 자산으로 신영연구기금을 설립했다. [본문]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회우 경조사 ◀

결혼

이병훈 회우= 3월 25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녀 결혼

박정진 회우= 3월 24일 낮 12시 강남 스타칼라티움(구 목화웨딩문화원) 2층 AUTEL에서 장남 결혼

부음

정희준 회우= 2월 25일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자택에서 모친상

▶ 저서 보내주신 분 ◀

박정진 회우=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 ‘소리의 철학 포노로지’ (2012)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056-01-105628 (가나다 순, 괄호안은 납입연도)

강명수(9,10,11,12)	강병우(11,12)	고수균(12)	고재봉(10,11,12)
국기일(12)	길윤석(12)	김담구(12)	김무중(12)
김영택(12)	김준하(11)	남선현(10,11,12)	노철용(12)
박기정(10)	박범진(12)	박순신(10,11,12)	박용근(12)
박우정(11,12 13)	박응수(12)	백인호(9,10,11,12)	손세일(10,11)
신동호(34년생 : 13, 14)		신성순(11)	신우식(10,11,12)
윤상철(9,10,11)	윤재홍(11,12)	이덕주(11)	이보길(11)
이상우(38년생 : 10, 11)		이우진(12)	이자현(9,10,11)
이재승(11,12)	정태연(9,10,11)	조남조(11)	조덕동(11,12)
주종환(12)	최덕모(9,10,11)	최무룡(11)	최상완(11)
최선록(12)	한기호(11)	한동원(11)	현소환(9,10,11)
홍진태(11,12)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7일 현재〉

전기안전 긴급출동 Speed-Call

☎1588-7500

매월 4일, 전기안전점검은 이렇게...

-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
- ◆ 습기가 있는 곳은 누전차단기 설치로 감전사고 예방
- ◆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
- ◆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 ◆ 올바른 전기 사용으로 전기화재 예방



행복가득, 기쁨가득...
안전한 우리가족!!

고객의 행복과 사랑을 밝혀주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분야 글로벌리더로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다음과 같이 신명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 ① 고객만족을 넘어서는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
- ② 기본에 충실한 전기안전 업무수행
- ③ 한국형 전기안전관리 모델 해외시장 수출



KECO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www.khnp.co.kr



원자력발전소 폐암환자를 다녀와서 -
사생대회에 참여한 고은샘 작품

“아빠! 원자력이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 ① 30년 운용 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무사고 운영
-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겹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처
- ③ 유능한 전문 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친환경 에너지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주